사바세계 없으면 불국토도 없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㊳ 묘음보살의 원력

그때 정광장엄국 안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음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모든 덕(德)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가까이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모두 성취하였다. 묘당상(妙幢相)삼매와 법화삼매와 정덕(淨德)삼매 등 백천만억 항하 모래알 수 같은 모든 큰 삼매들을 다 얻고 있었다.

마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놓은 광명이 그의 몸을 비추니 곧 정화수왕지불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장차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히 하여 공양하려 합니다. 또 문수사리법왕자 보살과 약왕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의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을 친견하고자 하노이다."

그때 정화수왕지불께서 묘음보살 향하여 이르셨다.

"그대는 저 나라를 가벼이 업신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라. 선남자여, 저 사바세계는 높고 낮아서 평탄하지 못하니라. 흙산과 돌산 등 여러 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부처님의 몸은 작고 보살들 또한 그 몸이 작으니라. 그런데 그대의 몸은 4만 2천 유순(由旬)이나 되고 내 몸은 6백 80만 유순이 되니라. 그대의 몸은 단정하여 백천만 가지의 복덕의 상에 광명이 더없이 눈부시니 그러므로 그대가 가더라도 저 나라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국토에 대하여 천하고 졸렬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묘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로 가는 것은 모두 여래의 힘이시며, 여래의 신통력으로 유희하며 여래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였기 때문입니다."

묘음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한 채 삼매에 들었다.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영축산)의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8만 4천의 보배연꽃을 피어나게 하였다. 염부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白銀)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가(甄叔迦)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문수사리법왕자가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먼저 이 상서(祥瑞)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천만 송이의 연꽃이 나타났는데 염부단금 줄기가 되고 잎은 백은으로 되었으며 꽃술은 금강, 견숙가의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습니다."

이때 석가모니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이르셨다.

"이는 묘음보살마하살이 정화수왕지불의 나라에서 8만 4천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여 예배하려는 것이며, 또 〈법화경〉에 공양하고 〈법화경〉을 들으려는 것이니라."

〈묘음보살품〉은 법화경 7권에 나오는 24번째 품이다. 정광장엄국에 있던 보살로 동방의 정화수왕지불을 모시면서 〈법화경〉 유통 원력을 가진 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모시는 것과 짝을 이룬다. 법(法)을 설하는 〈법화경〉은 법 자체가 법을 유통시킬 수 없으므로 법을 유통시키는 보살들의 역할이 다양하게 묘사된다. 묘음이란 중생의 언어와 음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생명의 소리이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법의 소리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을 유통시킨다는 인법일치(人法一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매우 미묘한 말이다. 천태의 〈법화현의〉에서는 경제목에 들어 있는 묘법이란 말을 불법묘(佛法妙), 심법묘(心法妙), 중생법묘(衆生法妙)의 삼묘(三妙)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묘음보살이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 약왕 등의 보살을 친견하고 싶어 하고 이어 삼매에 들어 연꽃을 피운다. 정화수왕지불이 사바세계를 가벼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충고를 곁들인다. 이 대목도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불보살의 활동무대가 사바세계이다. 비록 아무리 불국토가 많더라도 사바세계가 있어야 불국토가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사바세계가 없으면 불국토가 없다. 그것은 중생이 없으면 불보살이 없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㊳ 계율과 불교윤리

현대인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어떤 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인간다운 삶 내지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각양각색이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어떤 행동이 최선인지 고심하기도 한다.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 행동해야 할까? 불자라면 불교사상이나 계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대답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까닭에 바람직한 삶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모색하는 윤리학(倫理學)에 근거한 불교윤리(佛教倫理)가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철학의 한 분야인 윤리학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품성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규범과 원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행위의 기준이 되는 '좋음(goodness)'과 '옳음(right)'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윤리학의 주제인 동시에 인간다운 삶, 즉 바람직한 삶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양의 학문체계인 윤리학으로 동양의 불교사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불교윤리학에서는 불교적인 삶을 비교적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적으로는 불교적인 품성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불교적인 가치에 근거한 원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서양에서 불교윤리학에 대한 논의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대체로 불교사상을 알기 쉽게 서술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불교사상에 대한 윤리학적인 접근은 1990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대표적인 불교학자로 피터 하비(Peter Harvey)와 데미언 키온(Damien Keown)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데미언 키온은 불교를 '목적론적 덕윤리(teleological virtue ethics)'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 잠재력의 완성으로서 열반(涅槃)이라는 목적을 전제하며, 이 목표는 팔정도(八正道)와 같은 실천 수행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완성은 목표의 실천을 통해 달성되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자기전환(self-transformation)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해방식은 서양 윤리학이라는 바탕에서 불교사상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그는 응용윤리학의 쟁점들에 대한 불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불교윤리의 보편화 가능성이다.

불교는 붓다의 깨달음을 통해 구현된 종교이며, 깨달음의 추구는 모든 불교인들의 공통된 목표이다. 그런데 이 목표는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 목표는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이나 복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천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불교윤리는 불교인의 윤리를 넘어서 세계인의 윤리, 즉 보편적인 윤리로 비상할 수도 있다. 불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일관된 가치체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아시아의 전통문화를 흡수한 불교의 겉모습은 분명히 서양인에게 낯설게 여겨질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불교적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⑭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악업 짓는 원인, 사견 때문

6. 악업을 짓는 원인

불자 여러분! 악업을 짓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악업의 원인은 바로 미혹(迷惑)입니다. 번뇌에 물든 마음은 진리에 어둡고 탁하고 흐려진 미혹심 즉 무명 때문에 악업을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혹(惑)-업(業)-고(苦)의 삼도(三道)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진리에 밝고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인 보리심은 선업을 쌓게 하고 그 결과 행복한 과보를 받게 합니다.

과보의 성질은 지은 업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선인락과 악인고과(善因樂果 惡因苦果), 즉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움의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쌓으면 괴로운 과보를 받습니다.

〈증일아함경〉 제51권에서 "대개 사람은 그 행을 닦을 때 악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그 과보를 받나니 그 행은 끝내 멸하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만일 그 행을 찾아보면 그 과보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나니 선을 행하면 선의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의 과보를 받는다.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익힌 대로 따르나니 마치 오곡(五穀)의 종자를 심어 제각기 그 열매 거두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설한 것처럼 오곡의 종자를 심어 제각기 그 열매 거두는 것과 같이 지어진 업은 그 과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 업을 짓는 세 가지 행위와 열 가지 악업

불자 여러분! 업은 마음과 입과 몸의 세 가지로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의지와 몸[身]과 입[口]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삼업(三業)이라고 말합니다. 삼업을 다른 말로 신업(身業) · 구업(口業) · 의업(意業)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의 표출 행위를 의업(意業)이라고 하고, 의도를 가진 신체적 행위를 신업(身業)이라고 하며, 입을 통하여 말을 하는 언어적 행위를 구업(口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짓는 모든 행위는 신구의(身口意)의 세 가지 요소로 삼업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 · 구 · 의 삼업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열 가지의 악업(惡業)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신업(身業)에는 살생 · 투도 · 사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살생(殺生)이란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투도(偸盜)란 남의 재물에 집착하여 주지 않는 물건을 훔쳐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음(邪淫)이란 가족들로부터 보호되는 여자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짓는 구업(口業)에는 망어 · 기어 · 양설 · 악구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망어(妄語)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신 혹은 남 또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설(兩舌)이란 남을 이간질 하는 말입니다. 악구(惡口)란 거칠게 말하고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어(綺語)란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입니다. 뜻으로 짓는 의업(意業)에는 탐(貪) · 진(瞋) · 치(痴) 등 3 가지가 있습니다. 탐심(貪心)은 재물이나 모든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엿보고 항상 살피면서 구하고 희망하여 나의 소득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진심(嗔心)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성내는 것입니다. 치심(癡心)은 사견 즉 인과응보 업보를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저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가지 악업은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생겨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실론〉에서는 "죄 중에는 사견이 가장 무겁다"고 하여 악업을 짓는 원인이 사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견 때문에 업과 과보를 믿지 아니하고 윤회(輪廻)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실론〉에서 "만일 선업을 행하는 자가 임종 시에 사견의 마음을 일으키면 지옥에 떨어지고, 불선업[惡業]을 행하던 자가 임종 시에 정견의 마음을 일으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바른 마음[正見]을 가진다면 즉시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선업을 쌓았다 하더라도 사견을 일으켜 악업을 짓게 되면 곧 악도에 떨어져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백두대간에서 재배한 돌배 세월담은 도라지 스틱 液

자연에서 찾은 건강

300BOX 한정특판 특별보급가



₩75,000 → ₩57,000

[제품용량] 10ml x 30포(300ml) / 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도라지추출물(고형분8%이상, 도라지뿌리 11.11%)56.9%, 배추출물(고형분4%이상 / 돌배나무열매11.11%)12%, 배농축액(고형분60%이상)8%

인터넷에서 도라지 추출물 성분인 NAVER 플라티코딘D효능 ▼ 을 검색하세요.

백두대간 재배 약도라지, 돌배 제품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무농약, 유기농 재배, HACCP 인증
- 백두대간 800m에서 이식 재배한 8년근 약도라지 사용
- 다양한 영양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한 유기농 돌배 사용.
- 평창 동계올림픽 면세점에서도 판매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도라지에 함유된 "플라티코딘 D"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

자연에서 찾은 건강 진액골드

노루궁뎅이버섯 津液



₩69,000 → ₩55,000

[제품용량] 80ml × 30개입 / 1일 1~2회 /1회 (80ml)
[원재료명 및 함량]
노루궁뎅이버섯추출액88.9%(노루궁뎅이버섯 고형분 2%, 국산), 배농축액10%(국산), 오미자청(국산), 생강농축액(국산)

인터넷에서 NAVER 노루궁뎅이버섯효능 ▼ 을 검색하세요.

노루궁뎅이버섯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 실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노루궁뎅이버섯은 인지개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헤리세논, 에리나신 함유.
- 위산분비 조절, 염증개선 및 위장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올레아놀릭산" 함유.
-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제거 역할.
-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

"고객님의 건강을 생각하며 담은 건강한 자연! 믿고 드셔도 됩니다." 문의 :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